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칸타타 '들풀', "커켜히 쌓인 역사, 페이지 사이 애환들 담았다"



작곡가 김택수 샌디에이고 주립대 교수. 그의 칸타타 '들풀'이 10월 3일 조던홀에서 초연된다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 2부 김택수 교수 칸타타 처음 연주
세계 초연 칸타타 <들풀>, 보스톤 관객들이 가장 먼저 만나다
뉴욕한인교회와 밀접한 연관 <미스터선사인>서 제목 영감얻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원기자, 편집부 = 작곡가 김택수 샌디에이고 주립대 교수의 신작 칸타타 '들풀 The Grass Still Grows' 이 보스톤의 뉴잉글랜드음악원(NEC) 조던홀에서 10월 3일 세계 최초로 연주된다. 보스톤의 관객들은 이 작품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

보스톤한미예술협회가 주최하는 광복80주년 기념 음악회 2부에 연주되는 김택수 교수의 칸타타에는 성악가 홍혜란, 김효나, 최원희, 최기돈 씨 등이 출연한다. 앞선 1부에서는 뉴욕 클래식플레이어즈, 김동민 지휘자, 백혜선씨가 출연해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과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를 협연한다.

김택수 교수의 칸타타 '들풀'은

<전체 기사 읽기>

처음 동부 최초의 한인교회인 뉴욕한인교회 100주년 기념하기 위한 작품으로 출발했다. 그로부터 이 교회가 한국 독립운동에 기여한 바를 고려해 건설되는 '뉴욕 독립기념관'의 9월 23일 개관을 기념하는 작품으로 논의됐으나 팬데믹으로 멈췄었다. 이후 지난해 봄부터 다시 진행돼 지금에 이르렀다. 유머와 위트를 음악에 녹여내지만 과장하는 수사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김 교수는 이번 작품에 대해 "위낙 큰 규모의 작품을 진행하다 보니 수명을 깎아가면서 작업을 한다는 말이 처음으로 와 닿았다. 작품의 의의도 사실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었다"며 심혈을 기울여 매진했음을 밝혔다.

사실 14개 악장 ▶▶14면으로 계속

매사추세츠 및 동북부 7개 주, <동북부 공중보건 협력체> 공식 출범

연방 정부의 보건정책과 다른 길, 과학, 데이터 및 증거 기반 추구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미국 동북부 여러 주와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가 공중보건 협력을 위한 지역 연합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매사추세츠 보건부의 18일 발표에 따르면 이번 '동북부 공중보건 협력체(Northeast Public Health Collaborative)'에는 커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주,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등 7개 주와 뉴욕시가 참여한다. 이 협력체는 공중보건 기관과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전문성을 공유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건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협력체의 주요 목표는 과학과 데이터, 증거에 의거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백신과 의약품,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 자원의 최적화, 핵심 서비스 혁신, ▶▶10면으로 계속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로 건설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내 집 마련·투자·재융자,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저금리 융자·재융자,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믿을 수 있는 모기지 해결사!
모기지 제일 잘 하는 마이클!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차세대 원자력 모임, 핵연료가 원자력 경제성 확보의 핵심

한미 원자력 협정, 미국 동의 없이 실제적으로 농축·재처리 가능 불가
미국과 협력해 핵연료 수급 안정성 확보, 차세대 핵연료 기술 개발 기반 마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 과학기술자들이 주도하는 뉴잉글랜드 차세대 원자력 모임(회장: 백승규, 부회장: 박동근)이 두번째 세미나 및 네트워킹 시간을 갖고 다시 부상하고 있는 원자력 산업과 한국 원자력 산업의 핵심 과제 등을 논의했다.

9월 5일 금요일 저녁 6시, 주보스턴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광정열 부총영사가 축사를 전했으며, MIT 원자력공학과 방문교수로 재직 중인 이유호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핵연료의 주요 현안과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모임 연사로 나선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이유호 교수(현 MIT 원자력공학과 방문교수)는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가지 요소가 출력 밀도(Power Density), 연료 비용(Fuel Cost), 그리고 가동률(Capacity Factor)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기사 읽기〉

높은 출력 밀도가 한정된 원자로 용기 안에서 최대 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원리지만, 동시에 사고 시 안전성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은 발전 단가와 직결되며, 설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중에서도 “핵연료가 원자력 경제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가압경수로(PWR)의 효율을 더 높이기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는 것이다. 차세대 원자로(VHTR, 용융염 원자로 등)를 위한 새로운 연료의 자격 검증은 10년 이상 시간이 걸리거나 새로운 연료를 실험할 원자로가 없다는 구조적 문제까지 안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과거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와 연구 경험을 활용해 확보된 검증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

는 반면, 한국은 경험과 기반이 부족해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우리나라 농축시장 공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연료 확보의 불안 요소로 떠올랐다. 미국은 2028년까지 러시아산 우리나라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으며, 프랑스·중국 등은 자체 농축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농축 시설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과거에는 저렴한 러시아산 우리나라를 입찰로 들어왔으나, 이제는 다양한 공급망 확보가 과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그는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도 거론했다. 협정상 한국은 20% 미만의 우리나라 농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는 사실상 미국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말뿐인 양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시 한국의 독자적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협정으로 설치된 한미 고위급 위원회(HLBC)를 통해 농축·재처리 등 핵심 현안을 수시로 협의하고 있지만 미국의 동의가 관건이다. 한국은 이미 미국 농축기업 센트러스(Centrus)에 투자하며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 내 ‘블랙박스형’ 농축 시설 유치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 교수는 차세대 원

자로인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 “기존 원자력이 경제성을 확보하던 방식에 대한 도전이며, 건설·제조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개발 동향을 개괄했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차세대 단체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차세대 원자력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한인들 15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렁탕
SEOUL SEOLLENG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u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 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JUNG KWAN JANG

정관장의 프리미엄을 선물하세요

올 추석은, 정관장과 FULL 하게

행사 기간: 9/19 - 10/12/2025

Event 1
*전북류 15% 할인
*달임액 | 봉밀절편 20%할인
*달임액 | 전북 구매시 보자기 포장 제공
*천삼달임액 할인 제외

Event 2
*멤버스 고객 \$99이상 구매 시 사은품 증정 (\$25 상당)

Event 3
*GLPro 구매 고객 3일분 추가 증정

*이 제품은 질병을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균형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음용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구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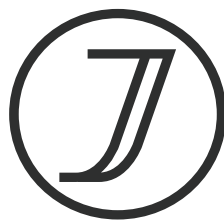
NO.1 WORLD'S NO.1 GINSENG BRAND
125 125 YEARS OF QUALITY & PURITY
420 420 QUALITY & SAFETY TESTS

JUNGKWANJANG.US / IG / KGSUS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COMPASS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Pin total sales 2023

한국 출신 피아니스트 노민영 · 양정윤, 10월 두번의 피아노 연주회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 출신 피아니스트 노민영과 양정윤이 오는 10월 보스톤 지역에서 두 차례의 피아노 연주회를 개최한다.

연주회의 제목은 ‘Reflections & Influences’ 로, 단순히 작품을 연주하는 전통적 형식에서 벗어나 작곡가와 연주자, 청중이 음악을 매개로 소통하는 무대를 지향한다. 두 연주자는 “음악이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화적 교류 속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 는 생각으로 이번 무대를 기획했다.

공연은 10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 서머빌 뮤직 스페이스(Somerville Music Space), 10월 5일 일요일 오후 4시 윈체스터 커뮤니티 뮤직 스쿨(Winchester Community Music School)에서 열린다. 특히 일요일 공연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청할 수 있다 (<https://youtube.com/@wcmsvideo?feature=shared>)

프로그램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소나타를 비롯해 20세기 여성 작곡가 에이미 비치(Amy Beach)와 멜 보니스(Mel Bonis), 그리고 미국 현



한국 출신 피아니스트 노민영(좌)과 양정윤

대 작곡가 클리프턴 캘린더(Clifton Callender, 1969~)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이 곡들은 문학 · 신화 · 다른 음악가들의 예술 세계 등 다양한 영향 속에서 탄생한 작품들이다. 비치의 발라드(Op. 6)는 시인 로버트 번스의 시 ‘My Love Is Like A Red, Red Rose’ 를 바탕으로 작곡됐고, 보니스의 연작 ‘Femmes de l’Égènde(전설 속 여성들)’ 는 신화와 문학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을 음악으로 형상화했다. 캘린더의 ‘à la manière de(…풍으로)’ 는 쇼팽, 바흐, 재즈 피아니스트 아트 테이텀의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으며,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소나타 2번은 그의 성숙한 음악세계를 보여준다.



연주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양정윤이 비치와 보니스의 작품을, 노민영이 캘린더와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을 맡아 연주한다. 두 연주자는 선화예술고등학교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동문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음악적 인연을 이어왔다.

양정윤은 보스톤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및 석사, 미시간대학교 석사,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피아노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노민영은 현재 텍사스 댈러스에서 활동 중으로, 서울대학교 졸업 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오르간과 피아노 석사, 피아노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한국전통예술원 2025년 가을학기 등록 안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보스톤 한국전통예술원이 2025년 가을학기 등록을 시작한다. 2025년 가을학기는 10월 5일까지 등록 마감이며, 10회 개인 레슨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서머빌 커뮤니티 침례교회, 서머빌 뮤직 스페이스, 올스턴 댄스 스튜디오, 뉴튼 개인 스튜디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되어 학생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지난 봄학기 쇼케이스를 100여 명의 관객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교사들의 수준 높은 가야금과 장구 연주, 전통 무용 공연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풍물놀이 앓은 반 연주와 채상 상모가 어우러진 선 반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조미나 디렉터는 “두 학기 이상의 철저한 준비 기간을 거쳐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고 전하며, 이번 가을학기 또한 양질의 수업과 공연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구반 강의를 맡은 박지혜 교사는 “풍물 가락 속에서 즐겁고 신나는 한 학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며 의지를 다졌다.

가야금을 지도하는 김경선 교사는 “가야금이라는 악기에 대한 이해와 기본기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는 동시에, 그동안 열심히 배워온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음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보스톤 한국전통예술원은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한국의 전통음악과 춤을 널리 알리며, 차세대에게 우리 문화를 전승하는 데 힘을 예정이다.

등록 문의:

www.IGJI.org/BAKTA
등록 마감: 2025년 10월 5일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Ch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2



3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SEP. 19th - SEP. 25th,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SAMGYEOPSAL (PORK BELLY) KIMBAP

The go-to Korean bite? It's all in the roll. Get your rolls going at home with the magic only H Mart ingredients can bring. 한 줄에 딱 찬 한국의 맛, 삼겹살 김밥을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Lychee 리치 LB \$2.99	Shanghai Choy 청경채 LB \$0.99	Gala/Ginger Gold /Mcintosh Apple 갈라/진저골드/ 맥킨시 사과 LB \$0.99	Red Leaf Lettuce 적상추 BUN \$0.99	Chinese Pomelo 중국 포멜로 LB \$1.99	Green Seedless Grape 씨없는 청포도 LB \$2.99	Lago Grape 라고 포도 6 LB/BOX \$14.99
Yellow Dragon Fruit 노란 용과 LB \$5.99	Korean Sweet Potato 한입 고구마 LB \$2.99	Green Onion 파 BUN \$1.99	Hami Melon 하미 멜론 LB \$0.99	Hass Avocado 해스 아보카도 5 CNT/BAG \$2.99	Orri Mandarin 오리 만다린 LB \$1.99	Yellow Corn 노란 옥수수 EA \$1.99

SPEND \$60 AND MORE LIMIT 2 BOX

신 선 한 정 육 M E A 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10.99	Fresh Ox Tail 생 소 꼬리 LB \$15.99
Fresh Pork Baby Back Ribs 생 돼지 등갈비 WHOLE PIECE/LB \$4.99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6.99
Fresh Chicken Tenderloin 생 닭안심 LB \$3.99	Marinated Pork Single Belly 양념 돼지 삼겹살 LB \$6.99

싱 싱 한 수 산 물 S E A F O O D at shockingly low prices

Live Fluke from Jeju 제주산 활광어 PRODUCT OF KOREA/LB \$21.99	Frozen Red Snapper 홍도미 LB \$8.99
Frozen Golden Pompano 금병어 600-800'S/LB \$3.99	Headless White Shrimp 흰새우 16-20'S/LB \$7.99
Frozen Cleaned Cuttlefish 껍질 벗긴 갑오징어 LB \$4.99	TONGTONGBAY Frozen Tilapia Fillet 통통배 틸라피아 필렛 LB \$3.99

SMART CARD MEMBER ONLY

OTOKI Cheesy Ramen 오투기 치즈라면 CHEDDAR \$4.99 3.91 OZ X 4 EA/PKG	OTOKI Cheesy Ramen 오투기 치즈라면 SPICY \$4.99 3.91 OZ X 4 EA/PKG
RAW NATURE Cooked White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흰쌀밥 \$10.99 7.4 OZ X 12 BOWLS/PKG	RAW NATURE Cooked Brown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현미밥 \$11.99 7.4 OZ X 12 BOWLS/PKG

Taste the tradition of Bibigo Kimchi at H Mart

H Mart에서 비비고 김치를 맛보세요.

KOKUHO California Premium Rice 국보쌀 옐로우 15 LB \$12.99	PALDO Kokomen King Cup 팔도 꼬꼬면 킹컵 3.7 OZ X 6 EA/PKG \$9.99	Q1 Allulose 1/10 Calories 큐원 알룰로스 1/10 칼로리 1.54 LB \$7.99	DAESANG O'Food Galbi Marinade for Beef 대상 오후드 소갈비 양념 29.6 OZ \$2.99	MOM'S STORY Coin Stock 엄마의 이야기 육수한알 VEGETABLE/ SEAFOOD 3.17 OZ \$4.99
PULMUONE Sweet & Sour Tofu Pouches 풀무원 새콤달콤 유부초밥 11.6 OZ \$5.99	AJINOMOTO Pork & Chicken Gyoza Dumplings 아지노모토 돼지고기 & 닭고기 교자 1.54 LB \$8.99	HAITAI Homerun Ball Snack 해태 홈런볼 14.6 OZ (9 EA/BOX) \$8.99	CROWN Jolly Pong Cereal Snack 크라운 조리풍 17.64 OZ (10 EA/BOX) \$8.99	CROWN Caramel Corn Peanuts Snack 크라운 카라멜콘과 땅콩 16.23 OZ (10 EA/BOX) \$8.99
K TOWN Sweet Melon Cream Crackers K TOWN 메로나 11.29 OZ \$2.99	K TOWN Sesame & Coconut Cracker 케이타운 고소애 11.29 OZ \$2.99	SSUEIM Korean Mild White Ceramic Egg Steamer Microwave and Oven Safe 쓰임 한국산 마일드 화이트 도자기 계란찜기 10 OZ \$10.99 17 OZ \$13.99 \$7.99 \$9.99	HAYANSON Basic Rubber Gloves 하얀손 일반형 주름 고무장갑 LARGE IVORY \$2.59 \$1.99	Octagon Glass Cup 팔각 유리컵 10.1 OZ \$1.99 12.5 OZ \$2.49 \$1.49 \$1.99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매사추세츠 10월 말부터 채용 공고시 급여 공시 의무화

25인 이상 사업장, 채용공고시 급여범위 공개해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임금 투명성법이 오는 10월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지난해 7월 이 법안을 서명해 발효시켰으며, 15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29일부터 적용된다. 새 법안은 직원이 25명 이상인 민간 및 공공 고용주에게 채용 공고시 급여 범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기존 직원이 승진이나 전보 제안을 받았을 때, 혹은 해당 직군의 급여 범위를 요청할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이를 제공해야 한다.

법 집행 권한은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실에 주어지며, 위반 시 벌금이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지원자나 직원이 임금 범위를 묻는 과정에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힐리 주지사는 당시 “이번 법은 특히 유색인종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다양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매사추세츠 고용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직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매년 임금 데이터 보고서를 주 노동 및 인력개발청(Executive Office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에 제출해야 하며, 주 정부는 이를 종합해 공개 보고서 형태로 발표한다.

〈전체 기사 읽기〉

조앤 러블리 상원의원은 “이번 법은 채용 공고의 투명성을 강화해 공정한 고용 관행을 촉진하고, 모든 구직자가 평등한 조건에서 미래 경력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처벌 수위는 첫 위반 시 경고, 두 번째는 최대 500달러, 세 번째는 최대 1,000달러, 네 번째 이상은 최대 2만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시행 초기 2년 동안은 고용주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이를 내에 시정하면 벌금이 면제된다.

매사추세츠는 이번 법 시행으로 임금 투명성을 제도화한 또 하나의 주가 됐다. 다만 다른 주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뉴욕주는 2022년부터 직원 4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채용 공고시 급여 범위 공개를 의무화했으며 캘리포니아 주는 2023년부터 직원 15명 이상 사업장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100명 이상 고용주에 대해서는 성별·인종별 임금 데이터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콜로라도주는 2021년부터 직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매사추세츠 법은 직원 25명 이상 고용주에만 적용되고, 위반 시 단계적 벌금을 부과하는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형태로 평가된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월드컵 경기 티켓 9월 10일부터 판매 시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전체 기사 읽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보스톤 개최 경기를 관람하려는 축구팬들은 오는 9월 10일부터 티켓 확보에 나서야 한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0일 오전 11시부터 9월 19일 오전 11시까지 비자(Visa) 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추첨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첨에 당첨된 팬들은 10월 1일부터 배정된 시간대에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FIFA는 조별리그를 비롯해 총 104경기에 대해 단일 경기 티켓, 특정 구장 티켓, 특정 팀 티켓 등을 동시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일반 판매가 이어지며, 결승전이 열리는 2026년 7월 19일 직전까지 추가 구매 기회가 제공된다. 대회 직전에는 남은 좌석을 선착순으로 구입할 수 있다.

티켓 가격은 조별리그 최저 60달러부터 시작하며, 결승전 최고급 좌석은 최대 6,730달러에 달한다. 보스톤에서 열리는 7경기를 포함한 럭셔리 호스피탈리티 패키지는 이미 지난 5월부터 판매 중으로, 최소 5,300달러에서 최대 2만6,700달러까지 다양하다.

보스톤에서는 총 7경기가 열린다. 조별리그 5경기(6월 13일, 16일, 19일, 23일, 26일), 32강전 1경기(6월 29일), 8강전 1경



기(7월 9일)가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대회 기간 동안 질레트 스타디움은 ‘보스톤 스타디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어떤 국가대표팀이 보스톤에서 경기를 치를지는 올해 예선전이 마무리된 후 확정된다.

보스톤은 이미 1994년 남자 월드컵, 1999년과 2003년 여자 월드컵 경기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대회를 위해 보스톤은 지난 2022년 6월 공식 개최 도시로 선정됐다.

hsb@bostonkorea.com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 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거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료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환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충청) / H+양지병원(신림)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윈트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협력업체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The MA Problem Gambling
Helpline
800-327-5050





이사 이 제 봉
DIRECTOR
781.654.5281
jebong@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cathysu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김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 보 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hyu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줄리 김 978.454.2043 juliekim@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파크 857.447.0591 nikipark1@gmail.com	피터 주 617.780.7839 peterchu@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허 978.666.3248 jinaheo@bostonpremierrealty.com	여현주 401.535.3387 yehyunju1@gmail.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hyoo@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02@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838.8973 hswang123@gmail.com	마리아 송 213.563.0997 maria022@bostonpremierrealty.com	딕키 허 413.507.1402 dickyheo@gmail.com	승배 김 617.913.3589 seungbaekim@bostonpremierrealty.com
희준 김 617.877.9387 heonjun01@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ayounglee@bostonpremierrealty.com	곽숙 781.898.1214 kwaksuk@bostonpremierrealty.com	희준 김 617.515.1182 heonjun01@bostonpremierrealty.com	희준 김 617.843.8723 heonjun01@bostonpremierrealty.com	희준 김 617.843.8723 heonjun01@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617.274.5610 tammywoolfolk@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330.9952 nancywang00@gmail.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u 617.935.2713 vivianyu@bostonpremierrealty.com	Xian Gole 413.527.8979 xian0201@gmail.com	Li Jiang 248.418.0117 lijiang01@gmail.com
John Tran 617.636.9652 johntra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rebecca02@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508.973.8076 michael02@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857.210.8830 linda02@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3.28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ilywang@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38.9285 crystalwei@bostonpremierrealty.com					
Jennifer Park 291.448.8589 jennifer02@bostonpremierrealty.com					
재영 김 781.956.0409 jaeyoung@bostonpremierrealty.com					
안상준 857.280.0434 ahn02@bostonpremierrealty.com					
Nini Bolanger 413.237.1886 nini011@gmail.com					





보스턴 시장 및 시의회 선거, 토요일 20일 실시 예정

7선거구 아폰소 후보 2위와 20표차 재검표 요구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턴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9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보스턴 선거관리국에서 시장 선거와 시의회 7지구 선거 재검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검표는 각각 시장 선거에서 3위를 차지한 도밍고스 다로사 후보와 7지구 시의원 선거에서 3위를 기록한 매브릭 아폰소 후보의 요청으로 진행된다. 두 후보는 재검표를 요구하기 위한 서명을 모아 선거당국에 제출했다.

7지구 선거는 연방 사법 처리로 공식이 된 타니아 페르난데스 앤더슨 전 시의원의 후임을 뽑는 선거다. 아폰소 후보는 지난주 예비선거에서 1,082표를 얻어 3위를 했으며, 2위인 미니어드 컬페퍼 목사 겸 변호사보

다 불과 20표 뒤졌다. 비공식 개표 결과 1위는 전 트랙 선수 출신이자 현 코치인 사이드 아메드로 1,155표를 얻었고, 2위 컬페퍼 후보가 1,102표를 확보해 본선 진출이 확정된 상황이었다.

아폰소 후보는 “7지구의 미래가 걸린 만큼 모든 투표가 정확히 집계됐는지 유권자들이 확실히 알 권리가 있다”며 “이번 재검표는 정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신뢰를 지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 선거의 경우, 다로사 후보는 2,409표에 그쳤지만 재검표를 통해 득표를 늘리고 본선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미셸 우 시장은 지난 예비선거에서 66,398표를 얻으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주요 경쟁자였던 조시 크래프트는

〈전체 기사 읽기〉

21,324표를 얻고도 선거에서 사퇴했다.

다만 주법상 본선 후보 교체 조건은 예비선거 후보 등록을 위한 최소 서명 수인 3,000명 이상 득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재 다로사 후보의 득표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재검표 결과에도 따라잡지 못한다면 11월 본선에서 우 시장이 단독 후보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다로사 후보는 “본선에 단 한 명의 후보만 나오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재검표를 통해 유권자들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로사 후보는 5개 선거구에서 50 서명지 이상을 모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재검표는 다로사 후보가 요청한 22개 선거구 중 5개 지역(4, 8, 9, 16, 18구)에서만 진행된다.



예비선거에서 3순위 득표 후보 도밍고스 다로사

보스턴 시장 선거, 11월 본선에는 누가 진출하게 되나

3위 후보 다로사 기준 미달...재검표 추진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전체 기사 읽기〉

= 조시 크래프트 후보가 사퇴하면서 보스턴 시장 선거 본선 투표용지에 최종적으로 누가 오르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월 치러진 예비선거에서는 4명의 후보 가운데 미셸 우 시장과 조시 크래프트 후보가 본선 진출권을 얻었고, 나머지 두 후보는 탈락했다. 그러나 크래프트 후보가 선거를 포기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보스턴 선거법에 따르면 본선 후보가 사퇴할 경우 차순위 득표자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후보의 득표수가 예비선거 출마 자격 요건인 유권자 서명 수 이상이어야 한다.

3위인 도밍고스 다로사 후보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예비선거 출마를 위해 요구되는 유권자 서명 수는 3천 명이지만, 다로사 후보의 득표수는 2,409표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다로사 후보는 본선 진출 의지를 거듭 밝히며 재검표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보스턴 시내 22개 선거구 각각에서 50명의 유권자 서명을 받아야 재검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현재 시 선거관리국은 예비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선거관리국은 “후보자가 사퇴하면 11월 본선 투표용지는 매사추세츠 주법 53조 13항(G.L.c.53, s.13)에 따라 최종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오는 11월 보스턴 시장 본선 선거는 사실상 미셸 우 시장의 단독 후보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 시장은 이미 예비선거에서 전체 투표의 72%를 얻어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한 바 있어, 재선 가도에 한층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SEP. 18TH - SEP. 25TH, 2025

LACTO FIT[®] Probiotics 락토피트 3세트 선물용



GOLD/8.46 OZ/LIMIT2 ~~REG. \$49.99~~

\$39.99



CORE/14.10 OZ/LIMIT2 ~~REG. \$59.99~~

\$49.99



Glasslock

Food Container Purple Edition Set of 5 글라스락 퍼플에디션 5개 세트

\$11.99



400 mL X 3 EA + 490 mL X 2 EA/SET
PRODUCT OF KOREA/LIMIT2

~~REG. \$19.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MA 초지능 AI 기업, 2년 만에 유니콘으로 급성장

라일라 사이언스 기업가치 12억 4천만달러 평가, 과학적 초지능 플랫폼 구축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의 신생 AI 기업 라일라 사이언스(Lila Sciences)가 창업 불과 2년 만에 기업가치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올랐다. 보스톤비즈니스저널은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라일라가 9월 15일 시리즈 A 투자 라운드에서 2억 3천5백만 달러(약 3조 2천억 원)를 조달했다고 전했다. 이번 라운드는 브레인웰(Brainwell)과 컬렉티브 글로벌(Collective Global)이 공동 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는 약 12억 3천만 달러로 평가됐다.

라일라는 지난 3월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Flagship Pioneering), 제너럴 캐탈리스트(General Catalyst), ARK 벤처펀드 등으로부터 2억 달러 규모의 시드 투자를 받고 스텔스 모드에서 벗어나 첫 공식 행보를 알렸다. 회사는 스스로를 ‘과학적 초지능(superintelligence) 플랫폼’이라 소개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과학적 방법론의 모든 단계를 실행함으로써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제프 본 몰트젠(Geoff von Maltzahn) CEO는 발표문에서 “첫 번째 AI 과학 팩토리를 통해 수십만

건의 AI 기반 과학 실험을 순환 구조로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번 시리즈 A 투자를 통해 이러한 시설이 우리의 엔진 역할을 하며, 인터넷 규모 데이터만으로는 불가능했던 더 높은 수준의 과학 지능을 가진 모델을 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플래그십 연구소에서 출발한 라일라는 이미 암과 면역질환 관련 신규 단백질 치료제, 백신 및 진단 기술 등을 설계 및 검증했으며, 초안정 금속 같은 첨단 소재 개발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기반 연구는 기존 인력이 며칠, 몇 주 걸리던 과정을 몇 시간 만에 마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주장이다.

현재 직원은 100명 이상이며, 채용 공고에는 40여 개의 신규 직무가 올라와 있다. 또 유전자학계 거물로 잘 알려진 조지 처치(George Church) 교수가 최고과학책임자(CSO)로 합류해 눈길을 끈다. 처치는 돼지 장기를 인간 이식용으로 개발하거나 멸종된 매머드를 복원하려는 생명공학 스타트업으로도 유명하다.

라일라는 케임브리지 퍼스트 스트리트(140 First St.) 본사 외에도 보스톤, 샌프란시스코, 런던에 연구·운영 거점을 확장할 계획이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올 겨울 코로나19 백신 지침 발표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 영유아 모든 성인 접종 권장
미국소아과학회 등 전문 학회의 권고와 데이터 기반해 마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연방정부와 별도로 올 겨울 시즌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주민들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중보건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동북부 공중보건 협력체(Northeast Public Health Collaborative)의 합의 문도 반영했다.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이번 지침에서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의 영유아와 모든 성인, 임신부와 수유 여성, 면역저하 및 기저 질환 고위험군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다. 2세에서 18세 아동·청소년은 고위험군이나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건강한 경우에도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원 접종을 권장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 로버트 케네디 연방 보건부 장관이 주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빼앗도록 두지 않겠다”며 “매사추세츠는 과학에 근거한 리더십을 발휘해 백신 접근권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백신을 반드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기사 읽기〉

이번 지침은 미국소아과학회(AAP), 미국산부인과학회(ACOG), 가정의학회(AAFP) 등 전문 학회의 권고와 최신 과학 데이터를 종합해 마련됐다. 연방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가 9월 18일과 19일 회의를 통해 전국 권고안을 심의·투표할 예정이지만, 매사추세츠는 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과학적 근거와 최신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앞서 지침을 발표했다.

주정부는 백신을 쉽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조의 조치도 취했다. 골드스타인 장관은 약사가 모든 자격을 갖춘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고, 주 보험국과 보건부는 보험사가 권고 백신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한 약사 면허위원회는 장관이 권고한 모든 백신을 연방 조치와 관계없이 약사가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번 지침의 전체 내용과 동북부 공중보건 협력체의 합의문은 주정부 웹사이트(mass.gov/VaccineGuidan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및 동북부 6개 주, 〈동북부 공중보건 협력체〉 공식 출범

▶▶1면에 이어서

공중보건 신뢰 제고,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참여 주와 뉴욕시는 공중보건의 공동 목표와 과제를 공유하면서도, 각 지역이 서로 다른 인구 구성과 법률·규제·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주체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각 회원은 협력체의 특정 이니셔티브에 선택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치적으로 필요와 가치, 목표, 법적·규제적 요건에 맞게 이를 조정해 적용할 수 있다.

지난 8월 로드아일랜드에서 첫 대면 회의를 가진 이 협력체는 이미 여러 실무 그룹을 구성했다. 협력

분야는 ▲공중보건 비상 대응 ▲백신 권고 및 공동 구매 ▲데이터 수집과 분석 ▲감염병 관리 ▲역학 및 실험실 서비스 등으로, 주 경계를 넘는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협력 사례로는, 올겨울 호흡기 바이러스 시즌을 앞두고 의료진이 환자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또 2026년 열릴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개최 도시들의 공중보건 비상 대응 준비, 인력난 해소를 위한 보건 인력 양성 방안, 주 실험실 간 서비스 연계도 논의 중이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오바마 "찰리 커크 피살 이후 미국 변곡점에"

트럼프와 보수진영, 정치적 반대 세력 용인안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된 사건과 관련해 “미국은 지금 변곡점(inflection point)에 서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라를 더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6일 펜실베이니아주 이리(Erie)에서 제퍼슨 교육협회(Jefferson Education Society)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민주주의의 핵심 전제는 서로 동의하지 못하고 때로는 매우 격렬하게 논쟁하더라도 폭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고 AP는 확보한 연설 원문을 토대로 밝혔다. 그는 “설령 상대가 ‘반대편’이라 생각되더라도 폭력은 우리 모두에 대한 위협”이며 “정치적 폭력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교회 총격 사건 이후 자신의 노력과 2001년 9·11 테러 직후 조지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하나로 묶는 끈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

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커크 피살 이후 트럼프와 보수 진영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해충(vermin), 적(enemy)’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 암살 직후 “급진 좌파”를 단속하겠다고 강경 발언을 이어왔다.

백악관은 오바마 발언에 강력히 반발하며 “그야말로 미국 정치 분열의 설계자”라며 오히려 오바마에게 책임을 돌렸다.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성명에서 “오바마는 대통령 재임 중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을 분열시켰고, 더 많은 미국인들이 오바마가 나라를 통합하기보다 분열시켰다고 느꼈다”고 반박했다.

오바마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연방 요원들이 신분증 검사를 실시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나는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여러 제도적 안전장치들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이 위험한 순간을 보여준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체 기사 읽기〉

오바마는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아내 미셸과 함께 커크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며 “이런 비열한 폭력은 민주주의에 설 자리가 없다”고 적었다. 그는 “커크의 입장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가 겪은 비극은 사실이며 나는 그와 그의 가족을 애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근 미네소타 주에서 멜리사 호트먼 주 하원의원과 남편이 피살된 사건까지 거론하며 정치적 폭력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오바마는 유타주 스펜서 폭스 주지사가 커크 피살 사건 이후 시민들에게 자제를 호소한 데 대해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공적 논쟁에서 지켜야 할 기본 규범을 보여줬다”며 높이 평가했다.

한편 찰리 커크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2세 타일러 로빈슨은 16일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검찰이 공개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로빈슨은 사건 직후 동거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이 범인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로빈슨에게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hsb@bostonkorea.com

ABC, 찰리 커크 발언한 지미 키멀 심야쇼 무기한 중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찰리 커크의 피살을 둘러싼 발언으로 인한 해고 및 방송 중단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ABC 방송국은 지미 키멀이 찰리 커크의 피살 사건에 대해 발언한 직후, 그의 심야 프로그램 ‘지미 키멀 라이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넥스타(Nexstar)가 전국의 ABC 계열 방송국들에 대해 “지미 키멀 라이브”를 무기한 편성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내려졌다. 넥스타 방송 부문 사장 앤드루 앨포드는 성명을 통해 “키멀 씨의 발언은 국가 정치 담론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모욕적이고 민감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 견해, 가치관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NBC에 따르면, 키멀은 지난 15일(월) 방송 오프닝 멘트에서 찰리 커크를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타일러 로빈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운동을 지지하는 인물이라고 암시했다. 그는 “MAGA 집단이 커크를 살해한 이 아이를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치부하려 인간성을 쓰면서 정치적 득점을 노리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백악관이 조기 개

〈전체 기사 읽기〉

만 인간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얼마나 힘들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후 방송은 기자가 백악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커크 피살에 대한 심정을 묻는 영상으로 넘어갔다. 트럼프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참고로 저 뒤에 보이는 트럭들이 바로 백악관 신축 무도회장을 짓는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150년 동안 추진해온 건데 정말 멋지게 완성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키멀은 다시 화면에 등장해 “그는 지금 슬픔의 네 번째 단계, 건설(construction)에 와 있다”며 “성인이라면 친구라 부른 사람이 살해당했을 때 이렇게 애도하지 않는다. 이 건 네 살짜리 아이가 금붕어를 잃었을 때 반응하는 방식”이라고 비꼬았다.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 브렌던 카는 17일 “ABC와 디즈니가 이 발언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접 나서겠다”고 경고했고, 이후 ABC는 “지미 키멀 라이브”를 무기한 편성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미 키멀(57)은 지난 2003년 1월 26일 첫 방송 이후 20년 넘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bostonkorean@hotmail.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 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미국 경제 양극화 심화... 고소득층은 호황, 저소득층은 설자리 잃어

WSJ, 청년실업 6.5% 10내 최고치, 흑인 실업률도 치솟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미국 경제가 다시 ‘두 가지 속도’로 나뉘어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지적했다.

고소득층과 장년층은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경제 상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저임금층과 청년층은 팬데믹 시기에 얻었던 혜택을 잃고 다시 불리한 위치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고소득층과 상당수 장년층은 여전히 활발히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자산 가치는 급등했고, 팬데믹 이전에 낮은 3%대 고정 모기지를 잡은 이들도 많다. 인공지능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이 있지만, 현재까지 이들의 직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반면, 저소득층의 흐름은 정체가 되거나 역전되고 있다. 팬데믹 기간 임금 상승의 수혜를 입었던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됐으며, 일부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흑인과 청년층의 실업률은 뚜렷하게 상승했다. 집값과 임대료는 크게 올라 주거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

최근 몇 년간 노동력 부족을 배경으로 저소득층이 임금을 빠르게 끌어올리며 격차를 줄여왔지만,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하위 3분위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은 연 0.9%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았다. 반면 상위 3

분위 노동자의 임금은 연 3.6% 증가하며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에서도 격차가 나타나, 저소득층 가계의 연간 지출 증가율은 0.3%에 그친 반면 고소득층은 2.2% 늘었다.

자산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상위 10% 고소득 가구(연소득 약 25만 달러 이상)는 올해 2분기 전체 소비의 49.2%를 차지하며 10년 전의 45.7%에서 크게 늘었다. 항공사나 명품 신발 등 고가 시장은 이들의 소비에 힘입어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최근 분기 프리미엄석 수익이 5.6% 늘어난 반면 일반석 수익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캠퍼스의 카멜리아 쿠넨 교수는 “오늘날의 격차는 주택 소유 여부와 밀접하다”며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미국 사회가 갈라졌다”고 지적했다. 팬데믹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가구는 집값이 50% 이상 뛰며 큰 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무주택 가구는 치솟은 집값과 대출 조건 탓에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2023년 35세에서 지난해 38세로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산가들은 시카고 노스쇼어 등 부유층 밀집 지역에서 수백만 달러대 고급 주택을 끌어 담고 있다. 최근 위네트카 지역에서는 3,100만 달러에 거래된 프랑스 리바이벌 양식 저택도 나왔다. 반면 시카고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이민자 알



프레드 바아 씨는 수입이 줄어 올해는 예년의 절반 정도밖에 벌지 못할 전망이라고 토로했다.

청년층의 고용 전망은 특히 암울하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실업률은 4.3%였지만, 대학을 갓 졸업한 20세에서 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6.5%로 10년대 최고치(팬데믹 시기 제외)를 기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초년생의 단순 업무를 대체하면서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 심리는 1970년대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비관적인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종별 격차도 뚜렷하다. 히스패닉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흑인 노동자의 실업률은 7.5%로 1년 전의 6.1%에서 크게 뛰었다. 흑인 근로자들은 저숙련, 초급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 둔화 시 해고 위험이 크며, 연방정부 감축의 여파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오피스 시장, 최고급 빌딩과 일반 빌딩 격차 확대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보스톤 오피스 시장이 팬데믹 이후 더욱 양극화되고 있다고 보스톤비즈니스저널(BBJ)이 16일 보도했다.

도시 전체 공실률은 24%에 달하며, 이는 2020년 초 팬데믹 이전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사무실 출근율 역시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25% 낮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최고급 빌딩(Class A)과 중저급 빌딩(Class B·C) 간의 성과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콜리어스의 제프 마이애스 연구 이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클래스 A와 클래스 B의 공실률 격차가 약 2.5%포인트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약 6%포인트로 확대됐다. 클래스 A 공실률은 22%인데 반해, 클래스 B는 27.9%에 이른다. 심지어 클래스 A 내부에서도 신축 ‘트로피 빌딩’과 노후 빌딩 사이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프루덴셜 타워(Prudential Tower), 200 클래런던(200 Clarendon, 옛 존 핸콕 타워) 등 대표적 초고층 트로피 빌딩은 사실상 만실에 가깝다. 200 클래런던은 99.9%가 임대됐으며, 로프스 앤 그레이, 베인캐피털, 딜로이트, 맥킨지 같은 대형 기업이 입주해 있다. 원 콘그레스와 윈스롭 센터도 개장 직후 대부분 공간을 채웠으며, 고급 편의시설이 직원들의 출근을 유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도심 전반의 공실률은 27%에 달한다. 반면 BXP가 보유한 백베이 지역 프루덴셜과 핸콕 빌딩의 출근율은 화요일 9%, 수요일

〈전체 기사 읽기〉 94%, 목요일 86%에 달해, 같은 시기 도심 일반 빌딩과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신축 빌딩은 각종 차별화된 편의 시설로 세입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원 콘그레스 타워는 개장 전 이미 임대료가 완료됐으며, 보스톤 도심 최고층 빌딩인 윈스롭 센터(Winthrop Center) 역시 80% 임대율을 기록 중이다. 이곳 근무자 상당수는 헬스장, 바, 친환경 설비 등 편의시설이 출근 만족도를 높인다고 답했다.

반대로 오래되고 수요가 낮은 중소규모 오피스 빌딩들은 아파트로 용도 변경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보스톤에서는 17개 프로젝트가 주거용 전환을 추진 중이다. 케임브리지에서 건설 중인 37층 빌딩도 오피스가 아닌 439가구 주거용으로 바뀌었으며, 헌팅턴 애비뉴에서도 34층 아파트 타워가 들어서고 있다.

다만 신축 빌딩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신축이라도 수요 검증이 끝나지 않은 자산은 리스업(임대채우기)에 난항을 겪는다. 곧 완공될 사우스 스테이션 타워(South Station Tower)는 약 68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오피스 공간 중 소수 세입자만 확보했으며, 시포트 지역의 10월드 트레이드 빌딩은 최첨단 설계와 편의시설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차인을 찾지 못한 채 시장에 나온 상태다.

결국 보스톤 오피스 시장은 팬데믹 이후 구조적 변화 속에서 “좋은 빌딩은 더 좋아지고, 그렇지 못한 빌딩은 외면받는”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25
본당의 날

2025. 9. 21(주일)

대성전 / 본당 마당

11:00 본당의 날 기념 미사

Christians Corbosa 보스톤 대교구
교구 주교 미사 집전

12:30 식사 나눔 (성모회)

13:30 본당 화합 레크리에이션

본당의 날에는
오전 9시 30분 양미사가 있습니다.
같이 부탁드립니다.

성당 주소
45 Ash St,
Newton, MA 02468
(617) 558-2711

가톨릭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예비신자 교리반 식별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및 장소 9월 28일(주일) 오후 1시, 보스톤 한인성당 사제관

문의 홈페이지 참조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칸타타 '들풀', "커커히 쌓인 역사, 페이지 사이 애환들 담았다"

▶▶1면에 이어서

에 사용된 가사만 살펴봐도 그 작업의 방대함이 한눈에 읽힌다. 시편 126편, 예배전례, 임종순 목사 연설문, 미국독립선언문, 변영로 시 '논개', 신사임당의 시, 미국 시인 엠마 라자루스의 'The New Colossus', 미국 흑인 문학계의 거장인 랭스턴 휴스의 'I, too', 장철우 목사의 '아우네 장터' 등이다. 가사에 대한 설명도 무척 흥미로워 작품에 대한 호기심이 더해진다.

김 교수의 기존 작품들은 뉴욕 필하모니, LA 필,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미국 유수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 한국에서도 널리 연주됐다. 버틀로우 작곡상 등 수많은 상도 수상했다.

이번 인터뷰는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음악위원이자 본지 객원기자인 소프라노 우상원 씨가 김택수 교수와 이메일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우: 광복 80주년과 뉴욕한인교회 독립기념관 개관을 맞아 위촉을 받은 신작 칸타타 <들풀 The Grass Still Grows>의 초연이 다가오고 있다.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되었으며, 완성하기까지 그 과정은 어떠했나?

김: 처음 이 작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 2019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원래는 2021년 뉴욕한인교회 100주년을 위한 작품으로 출발했고, 뉴욕한인교회가 한국 독립운동에 기여한 바를 고려해서, 이 작품이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것이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가, 작년 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첫 악상이 떠오른 것은 작년 여름이었는데,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테마는 '억압과 회복 suppression & resilience' 이었다. 그 사이에 틈틈이 다른 위촉 작품들을 쓰면서 작업을 병행했는데, 특히 텍스트를 고르는 데 아주 오래 걸렸다.

개인적으로 과장하는 수사법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워낙 큰 규모의 작품을 진행하다 보니 수명을 깎아가면서 작업을 한다는 말이 처음으로 와 닿았다. 작품의 의의도 사실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었고, 또 훌륭한 연주자들과 함께 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작품의 퀄리티를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작품의 편성도 합창, 국악, 피아노

등 여러 버전의 아이디어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곡을 써도 써도 끝이 나지 않고, 또 쓰면서 수정 및 편집해야 하는 양도 어마어마했다! 미리 알았으면 아마 시간 안배를 다르게 했을 것 같다.

우: 총 14개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대적·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가사를 사용하신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어디서 어떻게 영감을 얻고 이러한 구성을 하시게 되었나?

김: 작품 구상 단계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가사가 'Miserere nobis'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였다. 이미 당연히 주어졌던 '대한독립 만세'를 제외한 나머지 대하 이야기다. 그다음에는, 꼭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더 생명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서 착안했던 것이 한글과영어, 라틴어로 된 작품이었고, 또 성서 '출애굽기'였다. '탈맥락'을 통해서 깊이를 확보하고 싶었다거나 할까? 그래서 이 주제와 연관된 시편 126편을 영어로 더하자고 생각했다.

작품을 발전시키는 과정 중에, 백혜선 선생님께서 고장철우 원로목사님께서 쓰신 시들을 공유해주셨고, 김동민 지휘자님께서 뉴욕한인교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미스터 선사인'을 보라고 강력히 추천해 주셨다.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미스터 선사인'에서 '독립운동은 나라님의 것이 아니라 민초들의 것이다'는 골자의 대사가 마음 속에 확 들어왔다. 거기서 '들풀'이라는 제목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다. 제가 워낙 풀뿌리 운동을 좋아하기도 한다(하하).

거기에 진작부터 제가 담고 싶어했던 '이민 생활의 애환'을 더하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더 광범위한 설득력을 얻기 위해 미국의 다른 이민자들의 이야기들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엠마 라자루스(Emma Lazarus)의 <New Colossus>라는 시에서는 이민을 올 때 사람들이 갖는 희망이, 랭스턴 휴즈(Langston Hughes)의 <I, Too>라는 시에서는 다른 인종의 미국 삶이와 그 애환과 극복이 눈에 들어왔다. 신사임당의 시는 집에 있던 엽서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민자의 마음을 아주 잘 대변할 수 있겠다 싶었다.

독립 운동과 관련해서도,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 한국 독립

선언문이 아닌 미국 독립 선언문을 사용했고, 또 독립 운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한-일 관계에서 눈에 띄는 인물인 '논개'를 쓰기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문위원회와 만났을 때, 뉴욕한인교회의 역사를 담은 '강변에 앉아 울었노라' 책자를 선물받았는데, 글과 음악 사이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책자에서 두 구절을 발췌 및 편집했다.

거의 수도쿠 같은 퍼즐이다(하하). 워낙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많았다.

우: 음악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 작품인가?

김: 가사처럼 역시 다양한 문화와 장르를 반영하는 작품을 쓰고 싶었다. 그래서 천주교나 성공회 등에서 볼 수 있는 시편송, 국악 판소리, 그리고 각종 서양음악을 섞었다. 오페라나 오라토리오처럼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그리고 중창이 다 들어가기도 했다. 전체적인 통일성을 위해서 몇 가지 주선율들을 반복하면서 사용했다.

우: 또한 특정 성악가를 염두에 두고 쓰셨는지, 이번 연주자들은 어떻게 섭외되었는지 궁금하다.

김: 연주자 섭외는 백혜선 선생님께서 특별히 뉴욕한인교회를 거쳐간 성악인들 위주로 진행해 주셨다. 소프라노, 앨토, 테너, 베이스의 네 성부가 모두 필요했는데, 각 영

역에서 독보적인 분들이다. 소프라노 홍혜란님과 테너 최원휘님은 부부인데, 그 전에 홍혜란님의 음반 '희망가'에 제가 편곡 및 작곡(아리랑 연가)으로 참여한 경험 있어서, 두 분의 역량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메조 소프라노 김효나님 그리고 바리톤 최기돈님과는 작품을 쓰는 과정 중에 이 분들의 동영상상을 이것 저것 보고, 대화도 직접 해보면서 이 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약간 맞춤형으로 쓰게 되었다.

우: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달라.

김: 이번 작품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현악 작품, 오페라 등 꾸준히 큰 규모의 작품들을 쓰게 되지 않을까 싶다. 제 작품에 대해서 워낙 '일상'으로부터의 음악, '유머' 있는 현대음악 등의 수식어들이 붙었는데, 그 기저에는 사실 우리 인생의 있는 그대로를 담은 음악을 쓰고자 하는 제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나 싶다. 앞으로도 사람들이 미처 주제로 삼지 않은 보편적이고 작은 것들을 담도록 하겠다.

우: 보스턴에서 연주되는 이번 작품은 특별하거나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김: 미국의 역사와 문화의 정점에 있는 보스턴은 저에게는 뭐라고 할까... 꿈의 도시이다. 또 칸타타 '들풀'은 제가 이제까지 썼던 작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작품이라서 감회가 새롭다. 또 아름답고 음향이 뛰어난 조던 홀에서 연주되는 것은 처음이라서, 그 부분도 기대하고 있다.

이민 온 지 14년 밖에 안 된 나를 새내기 이민자로서, 미국 한인 사회, 또 한국 독립운동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기관을 위한 작품을 썼다는 것 자체도 뜻깊은 일이 될 것 같다. 커커히 쌓인 역사와 그 페이지 사이사이에 있는 우리들의 애환을 40분 이내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꼭꼭 눌러 담기 위해 애썼다. 이민 생활의 기간과 상관없이, 또 심지어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되길 소망한다.

<공연 정보>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자유의 울림

장소: 뉴잉글랜드 음악원 조던 홀(290 Huntington Ave, Boston, MA)

일시: 2025년 10월 3일(금) 오후 7:30

입장료: 무료 (사전등록 필수)
상세 정보: www.kcsboston.org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턴 가을 축제 시즌 개막 - 아시안 나이트 마켓부터 퍼레이드까지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보스턴의 가을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케임브리지 하버드 스퀘어에서 열린 제1회 하버드스퀘어 나이트마켓은 아시아의 문화와 맛, 커뮤니티를 한자리에 모아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브래틀 스트리트는 길거리 음식과 현지 벤더들의 독창적인 상품, 공연과 액티비티로 가득했고, 가라오케 콘테스트와 농구 3점 슛 챌린지(최대 상금 \$250), DJ와 함께하는 폼 글로우 파티까지 펼쳐지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밤을 선사했다. 참가자들은 쿠보 파빌리온(Asian Small World)에서 5개국의 전통을 체험하고, 여권 스탬프 카드를 모아 다양한 경품을 받는 즐거움도 누렸다.

하지만 축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가오는 9월 20일, 이번에는 케임브리지 센트럴 스퀘어에서 아시안 나이트 마켓이 이어지며 또 한 번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만 아니라 보스턴 곳곳에서 퍼레이드, 거리 공연, 계절 페스티벌까지 이어져 가을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놓쳤던 사람이라면 이번엔 꼭 발걸음을 옮겨보자.

센트럴 스퀘어 나이트마켓

오는 9월 20일, 센트럴 스퀘어 비즈니스 개선 지구는 보스턴 나이트 마켓 팀과 협력해 제2회 센트럴 스퀘어 나이트마켓을 유니버시티 파크에서 개최한다. 이번 나이트마켓은 무료로 개방되며, 30개 이상의 로컬 벤더와 푸드트럭이 참여해 위구르 수타면, 자메이카 전통 요리, 남아시아 길거리 음식, 디저트까지 다채로운 글로벌 메뉴를 선보인다. 여기에 비어가든, 문화 공연, 인터랙티브 게임, 랜턴으로 꾸며진 포토존 등도 준비돼 있어, 케임브리지의 가을밤을 더욱 활기

차게 물들일 예정이다.

날짜: 9월 20일 토요일, 2025
시간: 5pm -10pm
장소: 65 Sidney St, Cambridge, MA 02139 (University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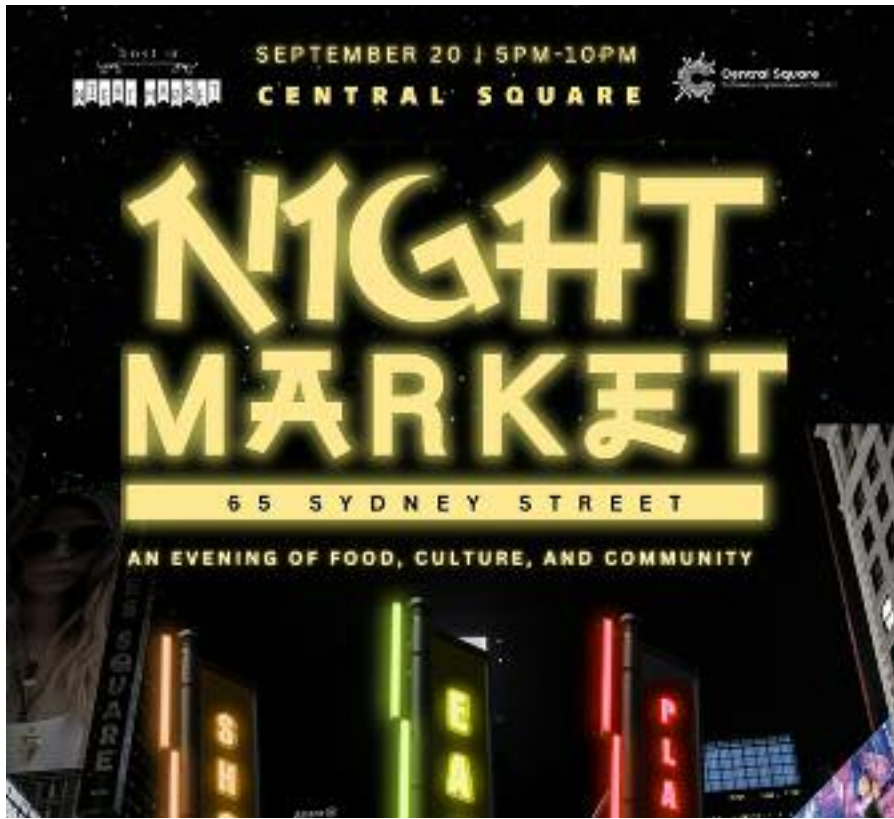
신청 사이트:
<https://www.centralsq.org/blog/central-square-night-market-is-back>

올스톤 스트리트 페어

매년 9월 보스턴 올스톤에서 열리는 올스톤 빌리지 스트리트 페어는 가족 친화적인 무료 축제로, 보스턴과 인근 지역 주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음악과 문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하루를 선사한다. 2025년 행사는 9월 28일(일) 오후 12시~6시까지 진행되며, 야외 무대 공연, 다국적 푸드코트, 아티스트 및 벤더 마켓, 놀이 공간과 인터랙티브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축제는 MBTA 등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 가능하다.

축제에서는 브라스 밴드, 라이브 공연, 다채로운 거리 공연이 진행되며, 국제 음식 코트에서는 위구르 수타면, 자메이카 전통 요리, 남아시아 길거리 음식, 디저트 등 글로벌 메뉴를 맛볼 수 있다. 현지 예술가와 소규모 상점도 참여해 독특한 상품을 판매하며, 지역 사회 단체들은 환경 보호, 사회 정의, 평화 등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축제 수익금은 지역 사회 발전과 자선 활동에 사용된다. 참여자들은 음악과 문화, 놀이를 즐기면서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하루를 경험할 수 있다.

날짜: 9월 28일 일요일, 2025
시간: 12pm- 6pm
장소: 올스톤 빌리지



웹사이트: <https://allstonvillagestreet-fair.com/>

HONK! 페스티벌

매년 가을 소머빌에서 열리는 HONK! 페스티벌은 미국과 전 세계에서 모인 브라스 밴드들이 음악, 커뮤니티, 행동주의를 함께 기념하는 3일간의 무료 축제다. 올해로 19회를 맞았으며 금요일 밤 데이비스 스퀘어에서 열리는 랜턴 퍼레이드와 밴드 쇼케이스로 시작해, 토요일에는 30개 이상의 밴드가 거리 곳곳을 무대로 삼아 거대한 음악·댄스 파티를 연다. 일요일에는 경제 정의, 환경 보호, 평화, 인종차별 반대 등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퍼레이드가 데이비스 스퀘어에서 하버드 스퀘어까지 이어져

축제의 절정을 이룬다.

HONK!는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니라 커뮤니티와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축제다. 밴드들은 무대 없이 거리에서 관객과 어울려 연주하며, 사회 정의·평화·환경 보호·인종차별 반대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지는 이 축제는 보는 이들을 춤추게 하고, 함께 행동하게 만드는 보스턴 가을의 특별한 명소다.

날짜: 10월9일 목요일 -10월12일 일요일, 2025

장소: 데이비스스퀘어 및 하버드스퀘어까지 이어지는 거리, 소머빌 중심 지역

웹사이트: <https://honkfest.org/2025-festival/>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턴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파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몽골에도 '300용사 부흥단 햇불'이 지펴지고...

지난 8월 31일~9월 6일까지 일정으로 <300용사 부흥단(대표총재 정주갑 목사)> “햇불기도회”가 몽골에 36개지부 발대식을 마치고 돌아왔다. 발대식에 함께 참여한 용사들은 대표총재 정주갑 목사, 회계 이학재 목사, 서기 진장용 목사, 필리핀총괄본부장 양승원 목사, 관리위원장 임통계 목사, 이병근 목사(몽골 선교사), 김영옥 목사, 이은희 목사 외 7명이 ‘몽골 햇불기도회’에 참여했다. 이번 몽골 발대식은 40여 개의 햇불기도회로 출발 36개의 지부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치고 돌아왔다.

국명은 몽골국(Mongolia)이며, 수도는 울란바토르(Ulaanbaatar), 면적은 약 156만 km2(세계에서 18번째로 넓음), 인구는 약 340만 명, 언어는 몽골어(키릴 문자 사용), 종교는 티베트 불교(라마교) 약 50% 이상, 사마니즘, 기독교 및 무종교도 존재,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대통령제와 의외제 혼합), 위치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 내륙국가, 지형은

고원지대와 광활한 초원, 고비 사막 알타이 산맥, 기후는 대륙성 기후 겨울은 혹독하게 춥고, 여름은 덥고 건조하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삿 6:12)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신 2:25)

<300용사 부흥단 표어>의 말씀이다.

1992년 울란바토르에 첫 공식 교회가 세워졌으며, 1990년대 초에는 거의 기독교인이 0명이었던 기독교인이 현재는 약 6만~7만 명(전체 인구의 약 2%)으로 추산된다. 교회 수는 약 600여 개의 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젊은 층의 신자들이 많고, 찬양과 공동체 중심

의 활발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몽골 기독교 성장에 한국 선교사들의 기여가 매우 컸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 교회 개척, 성경 번역, 신학교 설립에 참여했다. 몽골어 성경 번역과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교육 사역으로도 신학교 및 제자훈련 기관을 운영했으며, 장학사업,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센터 운영을 하였다. 의료, 사회봉사 사역으로는 무료 진료소, 이동 진료, 약품 지원을 하였다. 또한 빈곤층 아동 후원, 고아원 지원, 장애인 돕기 등 선교사들을 통해 많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기도 제목은 다음세대 사역이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벧전 5:8-11)

이번 <300용사 부흥단> “햇불기도회” 몽골 발대식 일정 중 오가는 운전길에 아슬아슬한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 무장된 기도꾼들이 움직이니 사단이 어찌 그냥 놔두기만 하겠는가. 우리는 이렇듯 사명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군사로 쓰임받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지부를 세워 그 지부를 중심축으로 하여 골목골목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며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300용사 부흥단(대표총재 정주갑 목사)>을 응원하며 기도한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명문대학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모자를 새로 얻었다. 며느리 모교의 모자인데, 부탁해서 사가지고 왔다. 모자엔 학교 이름이 박혀 있다.

그학교를 나왔는가? 이따금 받는 질문이다. 학교마크가 큼직해서 눈에 쉽게 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 대답은 간명하다. ‘Not me, But my daughter-in-law’. 학교는 이름하여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명문대학을 위협하고 있다. 정보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거다. 방만한 보조금의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인게다. 당연히 대학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 여기는 거다.

일터에 손님이 들어 다했다. 한국에서 왔는데, 학회에 참석했다가 방문한 거다. 일행은 7~8여명 되었는데, 모두 중년의 과학자/경영인들이었다. 수인사를 나누며 얼핏 볼 적에 모두 자신감에 차있는 듯 했고, 제 분야에선 출중한 두각을 내보이는 듯 싶었다. 미팅이 끝나고 티타임이었다. ‘혹시 한국에서 모모대학 나온 분 있나요’ 내가 던진 질문이었다. 당연히 한둘은 그 학교 출신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들던 손님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일행중 리더가 대답했다. ‘이분은 미국의 이 대학, 저분은 영국의 그 대학... 등등’. 모모대학 출신은 없었다.

멋쩍어 입맛을 다실적에 미안한 마음이 앞섰다. 이젠 모두 해외로 훨씬 대단한 대학과 대학원을 찾아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양인 게다. 손님중에 두엇은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이었다.

한국신문에서 읽었다. 보스톤코리아에도 기사화 됐다. 기사 타이틀이다. ‘하버드 이어 컬럼비아대도 트럼프에 반기...’ “강압적 조정 거부” (보스톤코리아 4-16-2025). 미국 명문대학과 트럼프대통령의 기싸움인 게다.

유학생들이 주된 타겟일 게다. 그렇다고 아무나 명문대학과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는 건 아니다.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학

생들만 선발된다. 한편 유학생들이 학문에 이바지 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요즈음 젊은 것들. 왕년의 이름하여 삼팔육과는 다른듯 싶었다. 영어가 유창한 건 둘째치고, 뽕뽕하며 예의도 밝다. 격세지감이 라고 뭉뚱그리게엔 뭔가 부족했던 거다. 내 스스로 슬그머니 자랑스러움이 넘쳐났던 거다. 잘 자라 줘서 고마우이.

서부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이나 UC버클리는 화살을 피했나?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도서 12:12)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공동 주최



자유의 울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10월 3일 (금)
오후 7시 30분

New England Conservatory
Jordan Hall
290 Huntington Ave
Boston, MA



뉴욕 클래식 플레이어즈
지휘 김동민



피아노 백혜선
소프라노 홍혜란
메조 소프라노 김효나
테너 최원희
바리톤 최기돈

작곡 김택수



사전 등록 후 무료 입장
www.kcsboston.org



베토벤 | 코리올란 서곡, Op. 62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Op. 73

김택수 | 칸타타 들풀 (The Grass Still Grows) - 세계 초연
뉴욕한인교회 위촉 작품

Organized by:
Korean American Diaspora Foundation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피부에 생긴 볼록한 멍울과 혹, 무심코 압출하면 안되는 이유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피부에 생기는 볼록한 멍울과 혹에 대하여 압출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외과 고윤송 복부센터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 고자 한다.

피부를 만졌는데 볼록 튀어나온 혹이나 멍울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여드름과 같은 트러블로 생각하거나 압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 위로 만져지는 혹이나 멍울은 양성 종양인 표피낭과 지방종일 가능성이 크다.

무심코 압출을 시도한다면 낭종 내 감염이 전신염증으로 발전될 수 있다. 외부에서 주는 압에 의해 낭종 내 충혈되어 있는 모세혈관을 손상시켜 고름 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패혈증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양성 종양이 만져질 경우 절대로 압출해서는 안되며 외과 전문의

를 찾아야 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외과 고윤송 복부센터장은 "표피낭과 지방종은 피부의 흔한 양성 종양이다. 표피낭은 얼굴과 목, 등, 어깨 등 피지샘이 많은 부위에, 지방종은 어깨, 등, 팔, 허벅지 등 지방이 많은 부위에 잘 생긴다"며 "피부 아래에 작고 말랑한 혹이 만져지면 전문의와 상담해야 하며, 함부로 만지거나 짜내면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피낭과 지방종은 모두 피부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촉감에서 차이가 있다. 표피낭은 피부 표면에 둥근 혹이 솟아 있고 중앙에 작은 점이 보일 수 있다. 이는 낭종과 피부 표면이 연결된 구멍이다. 표피낭이 감염되면 붉어지고 부어오르며 피지낭안에 고여있는 피지가 썩어 농양이 된다.

표피낭은 피부에 고정된 듯 잘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특징이며, 단단하고 탄력있는 촉감이다. 압박시 특유의 치즈같은 냄새가 나는 각질 덩어리가 나오기도 한다. 눌러

서 짜내면 피부에 난 구멍으로 배출되지만 표피낭의 주머니는 그대로 남아있어 다시 내용물이 들어찬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크기가 커지고 감염되면 농양으로 변한다.

지방종은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만져지며 마치 '기름 덩어리' 같은 느낌이다. 피부와 유착이 거의 없어 손으로 잡으면 잘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크기는 수cm 이상 크게 자라기도 하고, 표피낭과 달리 피부 위에는 특별한 구멍이나 변화가 없다. 지방종은 통증이 거의 없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외과 고윤송 복부센터장은 "지방종은 증상이 없으면 꼭 제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용적 이유나 통증 등 불편이 있을 경우 절제술을 받는다"며 "표피낭의 근본적 치료는 낭종(주머니)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낭종 벽이 남으면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국소마취 후 피부를 절개해 낭종을 제거한다"고 강조했다.

고윤송 복부센터장은 "표피낭 염증이 심

하면 바로 절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기전에 제거하는 것이 좋다" 고 했다. 표피낭과 지방종은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은 아니지만 방치했다가 염증이 심해지거나 크기가 커지면 피부절개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외과에서 미리 진단 받고 치료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부에 생긴 볼록한 멍울과 혹, 무심코 압출하면 안되는 이유”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제회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주최 2025년 가을 정기 교사 연수회

주제: **작은 변화, 큰 배움: AI 시대의 한국학교 교수법**

2025년 9월 27일 (토) 7:00 PM~9:45 PM
온라인 (by Zoom)



전체 강연

임성혜 박사 (Dr. Carol Lim)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 & MGH 정신과 전문의

제목: 마음 건강, 뇌 건강

분반 강의 (선택 수강)

- 이중언어 과정:
홍순주 강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이중언어 과정 교수법
- 유아 & 유치 과정:
장은아 강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작은 손, 큰 배움-기초 과정 한국어 수업 디자인 & Canva 활용법
- 기초 과정:
이보람 강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수업이 달라지는 1도 변화: 바로 쓰는 교수법
- 초급 과정 이상:
이정설 강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기계의 시대, 사람의 언어: AI와 함께하는 글쓰기 수업
- 차세대 교사 (고등학생/보조교사 대상):
노진/윤준호/최서경/최유나 강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선배들이 전하는 K-Teacher 성장 이야기

참가비: 교사 \$20/1인

마감 후 등록 및 비회원교 교사 \$25

신청마감: 9월 20일

등록:

https://forms.gle/nvqv_g8fBJKqbbzMA7



2025년 가을 정기 교사 연수회 신청서

주최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Korean School Association of New England

후원



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Korean Consulate General in Boston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재외동포청

BostonKorea.com 광고와 함께 확실한 비즈니스 성장을 이루어 보세요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law@lookjs.com



백영주 부동산

617.921.6979
clarapaik@gmail.com



나무 건축

617.775.4771
info@namuma.com

제이슨 전 부동산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최은경 부동산

781.690.4389
Chris.choi@compass.com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155 Magazine Street,
Cambridge, MA 02139

보스톤 그레이스 비전 한인 교회

910.670.4858
info@gracevisionumc.org

성요한 교회

781.861.7799
stjohns2600@hotmail.com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info@songkkimlaw.com

수잔 리 부동산

339.224.1512
susan@prorealty.group

켈리 김 모기지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Grace Kim 보험

978.800.3467
Grace.kim@ebhealth.us

Hmart
hmart.com